

## I. 論議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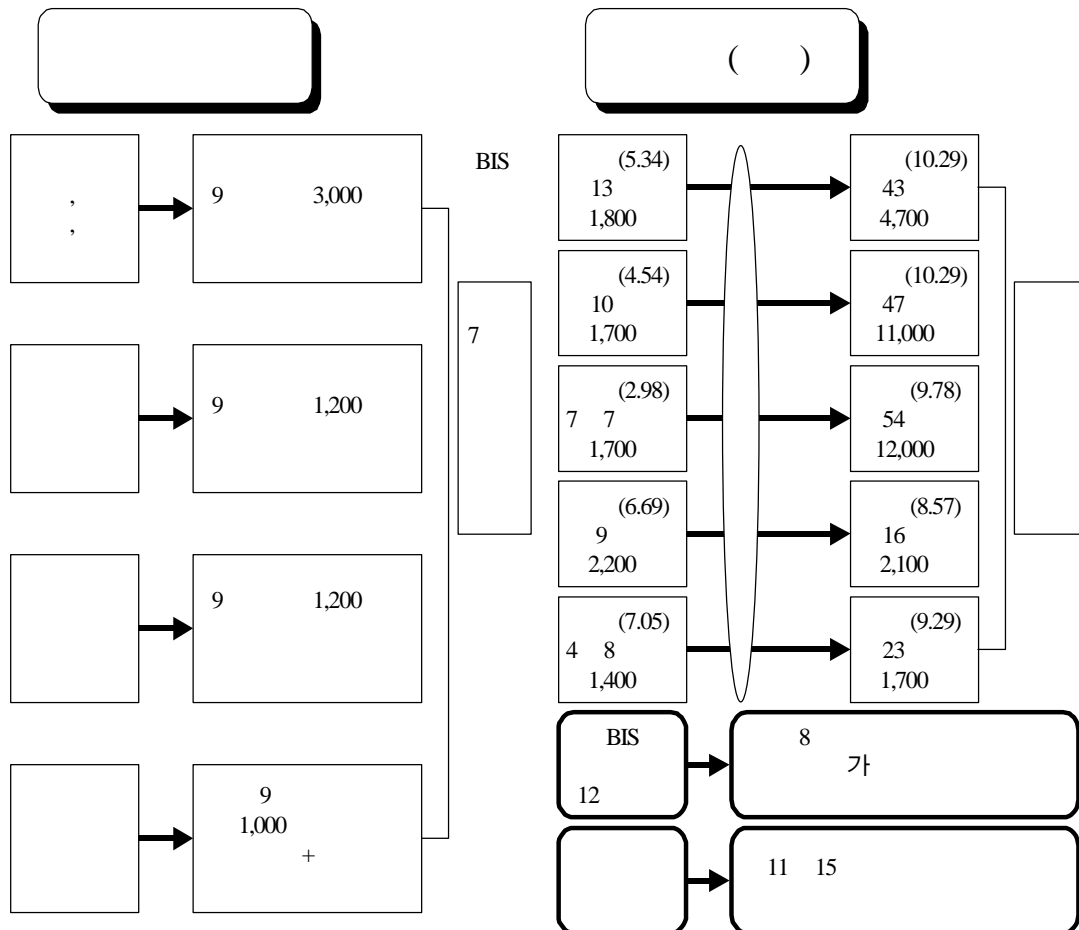
- 금감위는, 6월 29일 5개 퇴출은행과 그 인수은행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은행업의 구조조정을 가동시켰음
  - 8% BIS비율 미만의 12개 경영정상화 대상 은행 중 5개 은행은 퇴출되어 우량은행에 합병되고 여타 7개 은행은 조건부 승인을 통하여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음
  - 그 동안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제고 문제에 있어 비관적인 전망을 표현해 왔음
  -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투자부적격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근 은행의 외자조달이 단기에 치우치고, 민간부문의 신규외자조달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음
- 부실은행의 퇴출로 시작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내 금융사상 초유의 것으로 ‘은행불사’의 신화를 깨뜨린 과감한 조치임
  - 비록 그 동안 금융산업의 긴 구조조정 일정은 심각한 금융경색의 현상을 지속시켜서 기업의 부실사태를 심화시키면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 따져 함께 증가시켜 왔음
  - 그러나 이번 금감위의 퇴출 결정은 은행의 경영진들로 하여금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새로이 깨닫게 하면서, 아울러 은행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음
- 금감위는 이번 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부실기업의 과감한 정리를 통하여 부분별한 자금수요를 차단하고, 부실은행의 퇴출을 통해 은행에 의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려고 함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조조정이 기업이나 은행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강제 집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기업이나 은행의 부실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임

## II. 銀行 構造調整의 內容

### ○ 構造調整 內容

- (退出 銀行) 금감위가 발표한 은행 구조조정 내용은 5개 은행의 최종 퇴출로 확정함
  - 퇴출대상 은행은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은행으로 인수은행은 신한, 국민, 주택, 한미, 하나은행임
  - 퇴출 방식은 자산·부채 인수(P&A) 방식으로 진행됨

<그림 1> 인수·퇴출 은행 현황 및 구조조정 절차



주: 은행명(BIS비율) 총자산, 인원 수

- 5개 퇴출은행과 이들을 인수하게 되는 5개 인수은행의 현황은 <표 1>, <표 2>와 같으며, 퇴출은행의 대주주 현황은 <표 3>에 정리되어 있음

<표 1> 피인수 은행 현황

(단위: 억 원)

은행	BIS비율 (%)	총 자산	무수익 여신	총 여신대비 무수익 여신 비율(%)	부실 여신	점포 수	인원(명)	중소기업 지원성적
동화	5.34	129,682	7,990	11.1	4,273	137	1,856	C
동남	4.54	100,555	3,717	7.3	1,364	119	1,694	C
대동	2.98	77,152	7,520	14.7	3,811	108	1,753	C
충청	7.05	48,291	6,251	19.3	3,571	112	1,467	B
경기	6.69	88,935	7,658	12.3	3,999	194	2,278	B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주: BIS·총 자산은 '97년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 성적은 '98년 6월말 기준

점포 수·인원은 '98년 4월말 기준

무수익 여신·총 여신 대비 무수익 비율, 부실 여신은 '98년 3월말 기준

<표 2> 인수 은행 현황

(단위: 억 원)

은행	BIS비율 (%)	총 자산	무수익 여신	총 여신대비 무수익 여신 비율(%)	부실 여신	점포 수	인원(명)	중소기업 지원성적
신한	10.29	435,847	14,763	5.6	6,215	226	4,731	C
주택	10.29	469,621	8,449	2.8	3,219	499	11,021	C
국민	9.78	543,998	12,562	4.5	3,205	513	12,746	A
하나	9.29	229,441	3,227	3.1	925	110	1,704	A
한미	8.57	164,341	4,161	4.3	2,153	123	2,141	A

<표 3> 은행별 대주주 현황

(단위: %)

은행명	구분	퇴출기업 대주주 현황	소액주주	외국인
조흥은행	조건부		47.51	9.87
상업은행	조건부		54.83	8.67
제일은행	-		54.33	0.13
한일은행	조건부		42.94	2.94
서울은행	-		59.72	0.16
외환은행	조건부		34.08	6.52
장기신용은행	-		21.45	13.51
대구은행	-		52.58	13.61
부산은행	-		38.08	20.70
충청은행	퇴출	한화그룹(16.55), 김영문(11.74), 증안기금(6.57), 안병균(3.57), 제일화재해상보험(3.56), 계룡건설(3.54), 태경화성(2.62), 이재길(2.44), 이회택(2.02), 우성사료(2.00), 교보생명보험(1.73), 윤석원(1.59), 제일투자신탁(1.48), 삼성생명보험(1.23), 대한투자신탁(1.22)	30.40	0.21
광주은행	-		52.02	8.87
제주은행	-		39.32	18.44
경기은행	퇴출	신동아그룹(10.08), 한진그룹(8.70), 증안기금(6.13), 송창용(1.99), 삼성생명보험(1.85), 국민투자신탁(1.71), 한남투자신탁(1.70), SK그룹(1.57), 한일은행(1.12), 한국증권금융(1.04), 이기성(1.04)	14.53	1.69
전북은행	-		24.38	3.23
강원은행	조건부		43.31	2.86
경남은행	-		24.38	20.90
충북은행	조건부		43.31	0.05
하나은행	-		25.94	22.33
보람은행	-		57.02	11.49
신한은행	-		19.84	23.25
한미은행	-		36.10	25.25
동화은행	퇴출	승항배(4.25), 성원그룹(1.64), 인천황해도민인수조합(1.63), 서울개성시민인수조합(1.54), 경기도황해도민인수조합(1.42), 서울연백군민인수조합(1.36), 영양제과(1.26), 서울평양시민인수조합(1.24), 서울장단군민인수조합(1.17)	79.25	0.38
대동은행	퇴출	국민은행(7.60), 중소기업은행(7.60), 박창호(1.58)	9.54	-
동남은행	퇴출	중소기업은행(7.60), 국민은행(6.22), 강병중(2.91), 성원그룹(1.65), 흥보성(1.35), 이영로(1.26), EST ASIA CHALLENGER(1.15), 최정우(1.00)	95.75	0.07
국민은행	-		72.67	40.26
주택은행	-		73.82	34.67

주: '97. 12. 31 현재, '조건부'는 금감위 기준에 의한 조건부 승인임

- (경영평가 대상 은행) 금감위는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7개 경영 평가 대상 은행에 대해 유상증자 및 감자 조치를 추가 발표함(<표 4> 참조)
  -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은행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건부 승인함
  - 특히 충북, 강원은행은 완전감자, 평화은행은 95.49% 감자 명령
  -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은 감자조치 없이 9월말까지 각각 3천억 원 유상증자하도록 조치
  - 평화, 충북은행은 국제업무 취급 금지 및 9월말까지 1,200억 원 증자
  - 강원은행은 9월말까지 1,000억 원 증자

<표 4> 조건부 승인 은행에 대한 조치 내용

은행명 내용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
공통 사항	- 경영진 개편 · 대폭 교체 · 외부인사 영입 추진(4대 대형 시중은행은 외국인 전문가 최대한 영입) - 경영개선 · 증자 · BIS 비율 달성 위한 분기별 이행 계획서 7월말까지 제출						
감자 조치	없음				95.49% 감자	완전 감자	
유상 증자	- 3천억원 유상증자('98. 9말) - '99. 6월말까지 추가 증자				1,200억원 ('98. 9말)		1,000억원 ('98. 9말) 2,000억원 ('99. 3말)
기타					국제업무 취급금지		현대종금과 합병

<표 5> 조건부 승인 은행의 현황

(단위: 억 원)

은행	BIS비율 (%)	총 자산	무수익 여신	총 여신대비 무수익 여신 비율(%)	부실 여신	점포 수	인원(명)	중소기업 지원성적
조흥	6.50	556,002	31,124	8.5	12,698	481	8,397	B
상업	7.62	485,524	17,655	6.1	5,550	508	7,849	A
한일	6.90	538,536	17,099	4.7	6,634	468	7,542	B
외환	6.79	623,188	28,311	7.2	7,968	379	7,469	A
평화	5.45	83,586	3,153	6.2	1,588	108	1,885	B
강원	5.37	38,685	4,865	21.0	4,089	71	1,033	A
충북	5.92	31,391	3,403	16.2	2,721	73	994	C

<표 6> 경영 정상화 계획 평가시 적용된 주요 기준

평가 기준	내용
승인	조흥·상업·한일·외환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확충계획이 이행될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0년 6월말까지 8%(국제업무포기시 6%)를 달성할 수 있음</li> <li>·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됨</li> <li>-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능력부문계획이 적정함</li> <li>· 특기할 사항이 없음</li> </ul>
조건부 승인	강원·충북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확충계획이 이행되더라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0년 6월말까지 8%(국제업무포기시 6%)에 다소 미달</li> <li>-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증자규모가 실현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되는 경우</li> </ul>
미승인	동화·동남·대동·충청·평화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확충계획이 이행되더라도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00년 6월말까지 8%(국제업무포기시 6%)에 크게 미달</li> <li>-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li> </ul>

## ○ 銀行 構造調整에 대한 政府의 對策案

## - 고객

- (一般 預金主) 은행퇴출로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장치가 마련됨
- 퇴출은행들의 고객들은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수시 입출식 예금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토록 함
- 지급·결제 업무, 예금인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정리은행 발행 수표는 인수은행에서 현금화 함
- 예금 인출에 필요한 자금은 인수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부족분은 한국은행이 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무제한 지원해 줌
- (企業) 인수은행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은행이 지원하며, 정리은행의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정리은행의 거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이 정지되는 경우 인수은행이 예금담보 대출을 해주도록 함
- 기업의 당좌거래도 가능함

## - 임직원

- 퇴출은행의 4급 이하 직원(약 80%)은 모두 인수은행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인수작업이 완료되면 정식 직원으로 재채용될 것으로 예상됨

## - 株主

- (退出銀行) 퇴출은행의 주식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 밖에 없음
- 6월 28일 현재 퇴출 대상 5개 은행의 소수주주는 82만 8천 명으로 총 1억5천만 주, 금액으로는 770억 원에 달함
- 퇴출은행 주주들은 현행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퇴출은행의 능력 부족으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남아 있는 자본금이 없어 무의미함
- (引受銀行) 인수은행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현재 외국인 주주를 포함, 인수은행 주주들은 부실자산 인수에 따른 동반부실화 및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
- 정부는 주식매수청구 자금도 지원해 줄 방침임

#### - 인수은행

- 정부는 인수은행에 부실채권 매입 13조 원,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증자지원 2조 원, 부채 초과 보전분 2조 5천억 원 등 총 17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줄 방침임
- 인수은행은 부실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며 부채 초과액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전액 보전됨
- 인수후 6개월내 인수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인수자산이 부실화되면, 성업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Put Back Option)를 부여함
- 부실은행 자산인수로 인수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하면 하락분만큼 정부가 증자를 지원함
- 인수은행 자체 보유 부실채권도 성업공사에서 별도로 매입해 주며, 피인수은행의 고정자산 인수시 인수은행이 선별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자회사를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인수은행 직원에 대한 고용선택권을 줌
- 수출입 관련 보증 외의 지급보증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해 우발 채무를 해소함



○ 銀行 構造調整의 向後 日程

- 은행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된 현재 향후 추진 일정은 <표 7>과 같음

<표 7> 은행 구조조정의 향후 일정

일시	일정	기한 및 내용
6. 27	· 인수 계획 수립 · 주식매수청구 결정 기준일	· 이사회 결의 전 60일간의 평균 가격
6. 28	· 이사회 결의	· 자산·부채 이전 계약 · 주총 소집 · 명부 폐쇄
6. 29	· 영업 정지 공고 · 자산부채이전 명령 · 영업양수도 신고	· 계약 체결 또는 이사회 결의 즉시 주주 명부 · 폐쇄 공고 2주전 실사 기간 1개월 추정
6. 30	· 자산 실사 기준일	
7. 14	·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	· 주주명부 폐쇄 2주전
7. 29	· 주주 명부 폐쇄일	· 폐쇄 기간: 기준일 ~ 주총일
7. 30	· 자산 실사 완료	
8. 3	· 자산 부채 인수 가계약 체결	
8. 6	· 정관 변경안 확정	
8. 8	· 주주 명부 확정	· 폐쇄일로 부터 10일 소요
8. 10	· 주총 소집문 금감위 제출 · 정관 변경 금감위 인가	· 주총 소집 공고전 이가 사항이 아니면 발행 후 7일내 보고
8. 12	· 이사회 결의	· 개최 일시, 장소, 상정안 확정
8. 13	· 이사회 결의 내용 공시 ·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	· 주총 2주전 발송
8. 27	· 주식매수청구 서면 통지 마감	
8. 27	· 주총 개최 · 주식매수청구 서면 통지 개시일	· 특별 결의
8. 31	· 자산·부채 이전 본계약 체결	
9. 16	· 주식매수청구 서면 접수 마감	
9. 17	·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완료	· 주총 결의일 20일 이내

### Ⅲ. 影響

#### 1. 肯定的인 影響

- 부실은행의 퇴출 정리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의지를 표명** 하고, 궁극적으로 대외신인도의 제고에 이바지함
  - 퇴출기업과 함께 퇴출은행의 선정으로 기업과 여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연계되어 가속화 될 전망이다
  -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내 사상 초유의 은행 퇴출로 실현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은행의 퇴출을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 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금융 구조조정은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조치로서, **은행 이해관계자들의 의식 변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 그 동안 외형 성장에만 주력해온 은행들에게 비효율성의 제거, 자산 건전성의 중요성과 수익 경영의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함
  - ‘銀行不死’와 ‘銀行可死’의 상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은행의 영업 행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자율적인 변화는 향후 은행의 여신심사능력 배양 등에 상당히 이바지하리라 예상됨
  
- 부실은행이 부실기업을 감시·감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실은행의 정리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기업의 부실과 은행의 부실이 긴밀하게 연계된 현 국내 상황에서 부실은행의 퇴출은 향후 부실기업의 정리를 촉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 우량은행의 대형화를 통해 선도은행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건실화와 기업의 건실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

## 2. 否定的 影響

### ○ 資産・負債移轉(P&A) 方式의 問題點

#### - 정부의 강제 집행에 의한 은행 구조조정

- 은행퇴출은 은행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강제 집행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수은행 및 피인수은행 양측으로부터 불만 및 반발을 초래함

#### - 정부 선심성 지원은 막대한 국민 부담

- 금감위가 인수은행에 ‘당근’용으로 부여하는 지원은, 부실채권 매입(13조 원), 증자 지원(2조 원), 부채초과 보전분(2조 5천억 원) 등 총 17조 5천억 원 임
- 이외에도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가능한 예방하기 위해 P&A 방식 중에서도 **선택적 자산인수(clean bank)방식**<sup>1)</sup>을 채택함으로써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피인수은행의 자산은 성업공사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대한 국민 부담이 예상됨
- 이러한 지원은 은행 청산시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피하면서, 아울러 인수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짐
-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을 메워주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책임 분담이 명확해야 할 것임

1) P&A 방식은 인수은행이 인수하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포괄적인 자산인수(whole bank) 방식과 선택적인 자산인수(clean bank)방식으로 구분됨.

포괄적인 자산인수방식은 부실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의 회수가 비교적 클 때 활용됨.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청산방식에 비해 정부가 부담하는 정리비용을 줄일 수 있음

선택적인 자산인수방식의 경우,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건전한 자산과 부채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의 모든 부채는 인수하되 자산은 인수하지 않으려 할 경우 이용됨. 따라서 포괄적 인수방식보다 정리비용이 커지게 됨

### -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 상존

- 원칙적으로 은행 합병의 목적은 은행 경영의 효율성 향상이며 은행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발표된 은행 합병은 부실은행의 정리와 시장의 파급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임
- 현재의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비효율적인 합병은, 시너지효과(예,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주도에 의한 단순한 짝짓기를 통하여 실행됨으로써 우량은행의 동반 가능성이 예상됨
- 특히 국내 은행들의 경우 유사한 업무와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수익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 주주의 피해 문제

- **(피인수은행)** 자산과 부채를 인수 당하는 피인수은행의 주식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되며, 주주들은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법적으로 매수청구권이 제한되기는 어렵지만 자산·부채를 모두 우량은행에 넘기고 난 은행은 '깍뎀기'만 남아 청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임
- P&A 명령을 통한 은행 정리는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내리는 행정 처분이므로 매수청구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이들 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주주권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주식소각 절차도 필요 없을 수 있음
- **(인수은행)** 한편 인수은행의 경우, 인수 후 발생할 부실자산과 동반부실화의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됨
- 인수은행의 주주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
- 그러나 외국인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은행이 자금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주권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 P&A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나 외국인 주주들은 집단적으로 해당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큼

### - 고용 승계 문제

- M&A가 고용승계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는 경우와 달리, P&A는 부채와 자산의 일부만을 이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게 됨
- 은행 합병의 커다란 목표이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감원과 조직 축소로 종업원들의 반발이 예상됨
- '98년 들어 은행권의 인원 감축 규모는 1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조직 및 인원 축소와 더불어 이질적 은행 문화의 융합이 문제가 됨
- 과거 '70년대 서울·신탁은행의 합병 사례에서 보듯이 독자 전통에 대한 융화 문제가 관건임
- 현재로서는 일단 종업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모두 인수한 후 정리해고를 통해 인원을 감축할 가능성이 가장 큼

### - 예금자 보호 문제

- P&A의 경우 일종의 부채인 예금채무가 모두 그대로 이전되며, 법적으로도 예금자는 보호되며, 대출을 받은 고객도 중도 상환 없이 원래의 금리조건대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실은행에서 약속한 높은 이자율을 인수 은행과의 거래시에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받게 되면 낮은 금리를 감수하고 우량은행을 선택했던 예금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인수·피인수 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이 협의를 통해 이자율이나 예금 조건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경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며, 근로자들도 이미 폐쇄된 종금사 직원들과는 달리 고용 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 ○ 不實銀行의 整理 原則 缺如

### -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BIS비율 완화 등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원칙을 무시한 과정이 지적되며 이는 지방은행 및 일부 은행에 회생의 길을 터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원칙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의 방향 전환
  - 부실은행의 최종 결정시에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개입되기도 하였으며, 그밖에 구조조정시 불가피한 손실 분담의 원칙이 결여됨

**<표 8> 은행 구조조정 원칙의 변경 사례**

내 용	이 유	부 작 용
P&A 방식 부실은행 정리 시 부실대출의 전면인수 허용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 우량은행 부실화	국민부담 가중
부실은행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정부가 상환	콜시장등 자금시장의 교란	주주 채권자 등 도덕적 해이 주장
BIS자본비율 차등적용	정치권 등 이익집단의 입김 지역정서 등 경제외적 사항 고려	형평성 논란
정상화 계획 평가 난항	정치권 개입 관련 당사자 로비	구조조정의 지연

○ 其他

- 구조조정에 들인 희생이 무위로 그칠 우려가 있음
  - 당국은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부실은행의 상시 퇴출을 예고함
  - 이는 부실은행의 완전 정리로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한 당초 취지와 다르며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으로 대외신인도 회복이 늦어질 수 있음
- 퇴출은행 뿐만 아니라 인수은행들도 반발이 심해 인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
  - 부실은행 인수에 대해 당국은 강제함으로써 반발심을 자아냄
  - 은행간 짝짓기에 대해서도 서로의 득실 계산에 따라 정치권 로비 등 잡음도 일어남
  - 인수은행들은 이사회 결의도 늦어져 퇴출은행과의 계약이 지연됨
  - 절차와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행동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함

## IV. 補完 課題

## 1. 短期 補完 課題

- **심화될 자금난에 대한 시급한 보완대책 제공**
  - 5개 은행의 퇴출과 7개 조건부 승인은행에 대한 시정조치로 자금난이 발표전 보다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여신 자금의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특히 퇴출은행이 성격상 중소기업 전담 은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가장 어려워지리라 예상되므로, 한시적인 자금 공급 확대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 **은행의 동반 부실화 차단을 위한 보완장치의 마련**
  -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합병으로 발생될 시너지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짝짓기를 통하여 합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량은행의 동반 가능성이 예상됨
  -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처리에 대한 자금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20-25조원의 증자를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경영개선 권고 및 조치를 받은 12개 은행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는 이들 은행들이 향후 2년간 총 2조 7천억 원의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지만, 상당 수 은행의 주가가 증시에서 액면가를 밑돌기 때문에 계획대로 증자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이에 따라 예상되는 정부의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함
- **퇴출은행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부실책임 부과**
  - 부실은행의 경영진,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향후 재연될 수도 있는 부실은행의 도덕적 헤이

현상을 차단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 진행시 각 퇴출 예상 은행마다 일어난 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구조조정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2. 長期 補完 課題

### - 금융감독체제의 재정비: 전문화와 효율화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며 감독정보의 집중과 감독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향후 금융기관의 겸업화로 한 금융시장의 금융사고가 연계성이 큰 다른 금융기관으로 파급되어 전체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이 우려되므로 현행의 금융기관별 감독조직의 재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최근 세계은행들이 BIS의 자본 충족도뿐만 아니라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까지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감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 조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엄격한 적용 및 시행

- 향후 금융감독기관은 규제보다는 감독을 중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전문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감독기관은 감독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대한’ 감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실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배제해야 함
- 또한 은행 등 금융산업의 회계기준을 가능한 국제회계기준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여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부실여신 및 위험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예: 공시범위와 공시빈도의 확대)를 통해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 금융산업 진입의 완전 자유화

- 금융기관 신규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기존 금융기관의 영



업권 가치(franchise value)를 높여 경영진들로 하여금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구할 유인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음

-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내·외국인에게 공평하게 신규진입을 자유화하여 향후 은행의 경영진에 생기는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 방지해 나가야 함
- 또한 금융기관 인수자에게 정리해고 등 경영혁신을 위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삼가야 함

#### - 금융기관의 자생력 강화

- 과거 관치금융의 잔재를 청산하고 경영 선진화의 기틀 마련이 필요함
- 금융기관이 스스로 여신심사 기능 강화 등 경영의 선진화를 꾀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다시 부실화가 재현될 것임
- 사실상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성격의 원칙 없는 협조 용자는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부실 규모를 늘리고, 구조조정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게 됨

## <附錄> 銀行의 外形 成長 經營: 不實化의 根據

### 1. 銀行의 外形 成長

#### ○ 資産 擴大의 外形 成長 經營

- 국내 은행이 오늘날과 같이 부실화 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외형 성장 위주의 경영을 해왔다는 것임
  - 제조업과는 달리 은행업은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면 레버리지(자기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를 높일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음
  - 따라서 국내 많은 은행들이 외형 성장이 곧 수익 향상이라는 생각으로 자산 확대에 은행 경영의 초점을 맞추어 왔음
  - 그러나 부실 자산이 발생할 경우 높은 레버리지로 일순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국내 은행은 지난 10년간 총자산(은행계정+신탁계정)이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시중은행은 '85년 32조 원의 자산이 '96년에는 364조 원으로 증가
  - 지방은행은 5조 원에서 51조 원의 규모로 확대

<표 1> 국내 은행의 자산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85년	90년	94년	95년	96년
시 중 은 행	총자산	316,816	964,949	2,176,202	2,990,368	3,639,507
	은행계정	291,437	776,390	1,442,419	1,943,251	2,310,838
	신탁계정	25,379	188,559	733,783	1,047,117	1,328,669
	자기자본	13,236	88,517	141,918	173,673	187,146
	자산대비비	(4.5%)	(11.4%)	(9.8%)	(8.9%)	(8.1%)
지 방 은 행	총자산	51,492	160,070	326,517	415,063	514,871
	은행계정	47,178	133,675	247,344	309,588	376,512
	신탁계정	4,314	26,395	79,173	105,475	138,359
	자기자본	2,109	23,793	30,167	33,602	35,733
	자산대비비	(4.5%)	(17.8%)	(12.2%)	(10.9%)	(9.5%)

자료 : 「은행경영통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90년대 들어 국내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은 자기자본 증가율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레버리지를 크게 증가시켜 왔음
-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25%, 자기자본 증가율은 45%~60% 수준이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자산 증가율이 30% 수준이었으나 자기자본 증가율은 10% 정도였음
- 시중은행의 경우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자산 증가율은 27.2%였던 반면 자기자본 증가율은 14.2%에 그쳤으며, 지방은행은 자산 증가율이 23.7%, 자기자본 증가율이 7.9%에 그쳤음
- 따라서 국내 은행의 외형 성장 경영은 '90년대 들어와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2> 총자산 증가율

(단위: %)

구분		90년	94년	95년	96년
시중 은행	총자산	24.9	22.6	37.4	21.7
	은행계정	21.6	16.7	34.7	18.9
	신탁계정	49.3	40.5	42.7	26.9
	자기자본	46.2	12.5	22.4	7.8
지방 은행	총자산	25.5	19.5	27.1	24.4
	은행계정	23.2	16.6	25.2	21.6
	신탁계정	57.3	31.6	33.2	31.2
	자기자본	62.4	6.1	11.4	6.3

○ 不實 資産의 擴大

- 국내 은행의 부실 여신은 '97년 이후 크게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함께 크게 확대되었음
- 지난 '90년 부실 여신 비율이 2.1%에서 '96년에 0.8%까지 하락하였으나 지난 3월말 현재 3.4%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부실 여신 비중 규모가 시중은행(2.9%)보다는 지방은행(7.2%)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지방 은행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임
- 이와 같이 부실 여신 비중이 최근에 와서 크게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연쇄 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IMF 구제금융 수혜 이후 은행의 부실 여

신 기준이 크게 강화된 데도 그 원인이 있음

<표 3> 부실여신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90년	94년	95년	96년	98. 3
일반 은행	총여신	905,556	1,947,392	2,418,270	2,896,488	3,650,707
	부실여신	19,103	18,526	22,944	24,439	123,991
	(비율)	(2.1%)	(1.0%)	(0.9%)	(0.8%)	(3.4%)
시중 은행	총여신	791,181	1,695,856	2,109,870	2,524,736	3,243,938
	부실여신	17,484	16,318	19,998	21,056	94,794
	(비율)	(2.2%)	(1.0%)	(0.1%)	(0.8%)	(2.9%)
지방 은행	총여신	114,375	251,536	308,400	371,752	406,769
	부실여신	1,619	2,208	2,946	3,383	29,197
	(비율)	(1.4%)	(0.9%)	(1.0%)	(0.9%)	(7.2%)

자료 : 은행감독원

- '96년까지만 해도 부실 여신의 증가율은 총여신 증가율에 비해 낮았으나 '97년 이후 높아졌음
- '94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호전에 따라 은행의 총여신 증가율이 20%를 상회한 반면 부실 여신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으나 '95년 이후 총여신 증가 분만큼 부실 여신이 증가하였음
- '97년 이후에는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 위기로 부실 여신이 크게 확대되어 시중은행이 350%, 지방은행은 763%를 기록하였음.

<표 4> 여신 증가율

(단위: %)

구분		94년	95년	96년	98. 3
일반 은행	총여신	21.1	24.2	19.8	26.0
	부실여신	-0.8	23.8	6.5	407.3
시중 은행	총여신	21.0	24.4	19.7	28.5
	부실여신	-1.7	22.6	5.3	350.2
지방 은행	총여신	21.8	22.6	20.5	9.4
	부실여신	8.1	33.4	14.8	763.1

○ 預受金 및 店舖의 擴大

- 국내 은행의 예수금은 GNP 성장률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왔음
  - '94년부터 '96년까지 GNP 성장률은 연평균 13.3%였던 반면에 은행의 예수금 증가율은 28.8%를 기록하였음
  - 이는 국내 저축율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은행들간의 외형 성장 경쟁에 따른 수신 증가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표 5> GNP 증가율과 예수금 증가율 비교

(단위: 억 원)

구분		90년	94년	95년	96년	97년
GNP		1,782,621	3,037,726	3,489,793	3,864,382	4,160,179
	증가율	-	14.3%	14.9%	10.7%	7.7%
예수금	은행계정	506,791	1,006,835	1,379,580	1,622,389	-
	신탁계정	213,218	768,066	1,083,396	1,386,189	-
	합 계	720,009	1,774,901	2,462,976	3,008,578	-
	증가율	-	25.3%	38.8%	22.2%	-100.0%
GNP대비 비중		40.4%	58.4%	70.6%	77.9%	0.0%

자료: 「은행경영통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재정금융통계」, 재정경제부

- 국내 은행들은 예수금 확대를 위해 지난 10년간 점포 수를 크게 확대해 왔음
  - 지난 '85년 1000개에도 미치지 못했던 은행의 점포 수가 '96년에는 3900개로 4배나 증가하였음
  - 점포 당 예수금과 대출금도 '85년 2조 원 규모에서 '96년에는 8조 원, 4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음
  - 점포 당 예수금 규모 증가보다 대출금 규모의 증가가 낮은 것은 점포 확대를 통한 예수금을 대출금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운영한 것을 의미함
  - 이는 경기 침체와 함께 주가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 수익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표 6> 은행 점포 수 및 점포 생산성 추이

(단위: 개, 억 원)

구분		85년	90년	94년	95년	96년
시중 은행	점포수	957	1,695	2,681	3,476	3,891
	점포당 예수금	20,502	38,774	69,207	75,143	77,945
	점포당 대출금	21,721	31,333	43,905	45,430	44,882
지방 은행	점포수	398	638	1,001	1,081	1,214
	점포당 예수금	9,079	21,200	31,866	36,465	38,579
	점포당 대출금	8,019	14,998	20,678	23,439	24,423

자료: 「은행경영통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2. 銀行의 收益性 現況

- '90년 이후 국내 은행의 총자산 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모두 하락해 왔음
  - 국내 은행의 부실 여신 증가율이 '97년 이후에나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자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하락한 것은 일반 관리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함
  - 국내 은행의 ROA는 '90년 0.77%에서 '96년 0.32%로 하락하였고, ROE는 6.28%에서 3.80%로 하락하였음
  - 시중은행의 자산 및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지방 은행에 비해 더 떨어짐으로써 수익성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총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90년	94년	95년	96년	97년
일반 은행	ROA	0.77	0.62	0.38	0.32	-0.93
	ROE	6.28	6.09	4.19	3.8	-14.18
시중 은행	ROA	0.68	0.61	0.35	0.28	-0.90
	ROE	5.97	6.17	3.91	3.49	-14.09
지방 은행	ROA	1.33	0.7	0.61	0.51	-1.71
	ROE	7.45	5.73	5.63	5.41	-14.77

자료: 「은행경영통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1인당 수익성과 점포당 수익성도 하락하였음
  - 그러나 국내 은행의 1인당, 또는 점포 당 업무 이익과 순이익의 규모를 살펴보면 업무 이익의 경우 '90년대 들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에 반하여 순이익의 경우는 크게 하락하였음
  - 이는 은행의 일반 관리비 및 간접비(overhead costs)가 '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8> 1인당 생산성 및 점포당 생산성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90년	94년	95년	96년
시중 은행	1인당 업무이익	16.6	58.9	40.8	41.9
	1인당 순이익	8.2	12.7	7.5	6.9
	점포당 업무이익	711	1,879	1,227	1,079
	점포당 순이익	351	406	225	177
지방 은행	1인당 업무이익	19	29.2	45.5	33.4
	1인당 순이익	10.2	8.8	6.4	9.6
	점포당 업무이익	671	734	1,376	679
	점포당 순이익	319	221	192	196

- '97년 기준 시중은행의 생산성 현황을 보면 '96년 대비 큰 감소를 보임
  - 은행의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행원당 업무이익은 2,680만 원으로 '96년 대비 31.6%의 감소를 보임
  - 1인당 손익은 시중은행 평균 3,700만 원의 순수실을 기록했으며, 흑자를 보인 은행은 국민, 주택, 신한, 하나, 보람은행 등에 불과함

<표 9> '97년 은행별 생산성 지표

(단위: 백만 원)

은행명	1인당 업무이익	1인당 당기순이익	1인당 경비	점포당 업무이익
조흥	48.6	-33.7	54.5	1,094
상업	31.6	-22.5	54.3	688
제일	-89.8	-194.2	47.9	-2,117
한일	49.3	-34.3	55.0	1,122
서울	-43.3	-122.1	47.4	-1,017
외환	47.8	-10.0	53.6	1,037
국민	43.4	7.6	49.7	1,211
주택	49.9	9.3	41.0	1,306
신한	84.3	7.9	63.0	1,912
한미	39.2	-16.1	58.4	769
동화	5.1	-64.7	61.5	83
동남	35.9	-20.0	54.8	594
대동	19.6	-43.9	52.0	413
하나	89.8	26.0	66.2	1,456
보람	63.7	6.1	63.0	1,075
평화	24.1	-25.9	52.8	597
시중은행 평균	27.0	-36.7	51.8	618

자료: 은행감독원



<別添>

<표 10> 은행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90-'97)

(단위: %)

구분	90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조 흥	7.40	9.79	10.07	9.01	8.48	6.50
상 업	7.20	9.84	10.56	9.64	9.25	7.62
제 일	8.00	10.19	10.04	8.71	9.14	-2.70
한 일	8.50	11.09	11.04	9.72	8.89	6.90
서 울	7.70	9.71	10.62	8.97	8.56	0.97
외 환	5.30	9.23	9.06	8.66	9.16	6.79
6대시은평균	7.35	9.98	10.23	9.12	8.91	4.35
국 민	N.A	N.A	N.A	6.06	8.46	9.78
신 한	14.50	13.26	11.68	11.77	10.03	10.29
한 미	10.50	8.56	8.49	8.57	8.80	8.57
동 화	19.90	15.98	12.39	10.64	9.48	5.34
동 남	17.30	9.78	9.53	8.61	8.76	4.54
대 동	19.40	11.85	9.20	8.39	9.07	2.98
하 나	-	7.62	8.12	8.35	8.71	9.29
보 람	-	9.69	8.92	8.68	8.70	9.32
평 화	-	26.12	12.10	9.49	8.92	5.45
시은평균	8.50	10.40	10.19	8.97	8.97	6.11
대 구	11.90	12.87	11.77	11.12	9.93	11.25
부 산	8.00	10.28	10.27	8.61	8.58	9.66
총 청	12.40	14.81	14.46	11.55	9.81	7.05
광 주	14.30	18.75	14.05	12.96	11.27	10.65
제 주	14.70	29.44	32.16	24.32	14.95	12.13
경 기	13.00	15.32	12.52	10.89	8.96	6.69
전 북	22.90	22.71	19.13	16.43	15.13	13.27
강 원	18.70	17.36	16.42	14.54	12.03	5.37
경 남	12.50	14.83	11.62	10.03	9.41	12.27
총 북	18.50	14.39	12.21	10.97	10.02	5.92
지은평균	13.00	14.86	13.11	11.44	10.15	9.43
일은평균	9.10	11.00	10.62	9.33	9.14	7.44

주: 93년부터는 BIS자기자본비율임.

자료: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표 11> 은행별 총자산 이익률(ROA)의 변화 추이 ('85-'96)  
(신탁계정 제외)

(단위: %)

구분	85년	90년	94년	95년	96년
조 흥	0.13	0.70	0.71	0.47	0.4
상 업	0.13	0.53	0.29	0.44	0.42
제 일	0.13	0.75	0.64	0.07	0.02
한 일	0.13	0.82	0.70	0.38	0.23
서 울	0.18	0.61	0.36	0.03	△0.88
외 환	N.A	0.25	0.45	0.40	0.33
6대시은평균	0.12	0.61	0.53	0.30	0.23
국 민	N.A	N.A	N.A	0.46	0.62
신 한	0.67	1.85	1.24	0.84	0.75
한 미	0.49	1.48	0.70	0.38	0.54
동 화		0.71	0.30	△0.61	0.15
동 남		0.04	0.33	0.02	0.27
대 동		0.02	△0.27	0.23	0.21
하 나			1.33	0.91	0.87
보 략			1.34	0.71	0.56
평 화			0.50	△0.75	0.19
시은평균	0.16	0.68	0.61	0.35	0.28
대 구	0.26	1.16	0.88	0.88	0.78
부 산	0.10	0.58	0.47	0.56	0.64
충 청	0.49	1.63	0.92	0.69	0.15
광 주	1.09	1.24	1.16	0.59	0.25
제 주	1.89	2.46	1.50	0.46	△0.43
경 기	0.51	1.41	0.31	0.31	0.06
전 북	0.39	2.4	1.11	0.32	0.34
강 원	2.49	1.86	1.19	0.92	0.72
경 남	0.46	1.39	0.34	0.85	1.10
충 북	0.19	1.71	0.22	△0.08	0.37
지은평균	0.52	1.33	0.7	0.61	0.51
일은평균	0.21	0.77	0.62	0.38	0.32

자료: 「은행경영통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표 12> 은행별 자기자본 이익률(ROA)의 변화 추이 ('85-'96)

(단위: %)

구분	85년	90년	94년	95년	96년
조흥	3.17	6.12	7.6	5.3	5.04
상업	2.84	5.43	3.32	5.23	5.85
제일	3.36	6.78	7.43	0.82	0.29
한일	2.99	6.78	7.55	4.04	2.82
서울	3.49	4.65	3.7	0.32	-10.3
외환	n.a	4.48	5.55	5.09	1.2
6대시은평균	2.64	5.71	5.86	3.47	4.58
국민	n.a	n.a	n.a	7.7	9.33
신한	9.76	8.64	9.59	6.85	6.85
한미	5.7	8.4	6.77	4.25	6.76
동화	-	2.83	1.79	-4.83	1.41
동남	-	0.14	2.85	0.25	3.72
대동	-	0.07	-2.21	2.69	2.72
하나	-	-	10.01	7.92	8.28
보람	-	-	9.43	5.81	5.47
평화	-	-	2.85	-6.36	2.15
시은평균	3.53	5.97	6.17	3.91	3.49
대구	5.95	7.56	8.82	10.06	9.32
부산	3.57	5.73	5.85	7.63	9.75
충청	11.88	8.69	6.53	5.54	1.37
광주	12.8	6.19	8.58	5.16	2.61
제주	26.28	12.2	8.72	2.14	-2.5
경기	13.15	8.44	2.97	3.09	0.71
전북	7.14	7.87	5.88	1.97	2.37
강원	31.07	6.87	5.9	5.72	5.66
경남	14.36	7.16	2.69	8.08	11.36
충북	3.3	6.81	1.43	0.59	3.39
지은평균	11.71	7.45	5.73	5.63	5.41
일은평균	4.65	6.28	6.09	4.19	3.8

자료: 「은행경영통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lt;표 13&gt; 97년 일반은행 연결 재무현황 및 경영 지표

(단위: 억 원, %)

은행명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당기 순이익	총자산당 기순이익 률(ROA)	자기자본 당기순이 익률(ROE)	BIS 자기자본 비율
조흥	536,549	518,966	16,397	-2,915	-0.72	-11.91	6.50
상업	460,438	444,964	15,089	-1,533	-0.45	-8.57	7.62
제일	387,861	386,008	700	-16,852	-4.61	-79.98	-2.70
한일	541,067	522,044	16,060	-2,832	-0.73	-12.71	6.90
서울	356,381	349,026	7,017	-9,334	-3.25	-52.06	0.97
외환	673,137	648,886	21,036	-826	-0.15	-2.76	6.79
국민	572,374	551,089	20,807	<b>1,128</b>	0.31	4.11	9.78
주택	381,588	373,076	12,757	<b>1,084</b>	0.36	3.59	10.29
신한	417,547	398,652	18,444	<b>429</b>	0.19	2.39	10.29
한미	152,372	146,900	4,738	-292	-0.38	-7.26	8.57
동화	118,379	114,520	3,611	-1,453	-1.51	-24.63	5.34
동남	74,616	72,460	2,111	-399	-0.62	-11.88	4.54
대동	86,427	84,830	1,431	-897	-1.67	-32.98	2.98
하나	150,271	143,220	7,051	<b>467</b>	0.39	5.85	9.29
보람	127,205	121,230	4,761	<b>42</b>	0.11	1.94	9.32
평화	66,233	64,029	2,203	-468	-0.88	-13.78	5.45
시은 계 및 평균	5,102,445	4,939,901	154,213	-34,651	-0.90	-14.09	6.66
대구	146,401	138,322	7,602	<b>149</b>	0.17	2.07	11.25
부산	132,290	127,397	4,454	<b>198</b>	0.23	4.26	9.66
충청	61,387	58,707	2,306	-1,103	-2.88	-29.93	7.05
광주	76,031	72,125	3,522	-529	-1.00	-12.98	10.65
제주	13,793	12,798	998	-330	-3.65	-26.07	12.13
경기	76,138	72,718	3,420	-1,141	-1.75	-24.76	6.69
전북	40,019	37,617	2,192	-572	-2.35	-19.24	13.27
강원	35,005	33,897	1,108	-1,427	-5.03	-55.25	5.37
경남	76,411	71,690	4,580	<b>52</b>	0.05	0.61	12.27
충북	38,177	36,772	1,158	-879	-3.64	-43.78	5.92
지방은행계 및 평균	695,653	662,044	31,340	-5,626	-1.17	-14.77	9.60
일반은행 계 및 평균	<b>5,798,099</b>	<b>5,610,944</b>	<b>185,554</b>	<b>-40,278</b>	<b>-0.93</b>	<b>-14.18</b>	<b>7.04</b>

주: '97년 결산 기준. 지급보증액은 제외.

자료: 은행감독원

<표 14> 은행별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억 원, %)

은행명	총여신 <sup>1)</sup>	여신건전성 분류 결과			무수익여신 <sup>2)</sup>		부실여신 <sup>3)</sup>	
		고정 <sup>2)</sup>	회수의문 <sup>3)</sup>	추정손실 <sup>4)</sup>	총여신 대비비율	총여신 대비비율		
조흥	365,687	18,426	12,070	628	31,124	8.5	12,698	3.5
상업	288,232	12,105	4,938	612	17,655	6.1	5,550	1.9
제일	247,132	17,110	16,017	585	33,712	13.6	16,602	6.7
한일	365,931	10,465	5,734	900	17,099	4.7	6,634	1.8
서울	223,435	12,482	15,384	1,198	29,064	13.0	16,582	7.4
외환	395,280	20,343	7,667	301	28,311	7.2	7,968	2.0
<b>6대 시은</b>	<b>1,885,997</b>	<b>90,931</b>	<b>61,810</b>	<b>4,224</b>	<b>156,965</b>	<b>8.3</b>	<b>66,034</b>	<b>3.5</b>
국민	278,858	9,357	2,334	871	12,562	4.5	3,205	1.1
주택	302,478	5,230	2,962	257	8,449	2.8	3,219	1.1
신한	262,085	8,548	5,966	249	14,763	5.6	6,215	2.4
한미	97,332	2,008	2,113	40	4,161	4.3	2,153	2.2
동화	71,992	3,717	4,247	26	7,990	11.1	4,273	5.9
동남	50,869	2,353	1,320	44	3,717	7.3	1,364	2.7
대동	49,278	3,439	3,590	221	7,250	14.7	3,811	7.7
하나	104,439	2,302	863	62	3,227	3.1	925	0.9
보람	90,061	1,588	2,007	0	3,595	4.0	2,007	2.2
평화	50,549	1,565	1,567	21	3,153	6.2	1,588	3.1
<b>시은계</b>	<b>3,243,938</b>	<b>131,038</b>	<b>88,779</b>	<b>6,015</b>	<b>225,832</b>	<b>7.0</b>	<b>94,794</b>	<b>2.9</b>
대구	78,804	6,104	3,237	145	9,486	12.0	3,382	4.3
부산	66,304	4,646	2,980	64	7,690	11.6	3,044	4.6
충청	32,432	2,680	3,449	122	6,251	19.3	3,571	11.0
광주	41,644	2,193	2,072	143	4,408	10.6	2,215	5.3
제주	10,303	403	2,000	10	2,413	23.4	2,010	19.5
경기	62,031	3,659	3,918	81	7,658	12.3	3,999	6.4
전북	17,611	1,390	1,545	27	2,962	16.8	1,572	8.9
강원	23,151	776	4,077	12	4,865	21.0	4,089	17.7
경남	53,521	2,875	2,521	73	5,469	10.2	2,594	4.8
충북	20,968	682	2,690	31	3,403	16.2	2,721	13.0
<b>지은계</b>	<b>406,769</b>	<b>25,408</b>	<b>28,489</b>	<b>708</b>	<b>54,605</b>	<b>13.4</b>	<b>29,197</b>	<b>7.2</b>
<b>일은계</b>	<b>3,650,707</b>	<b>156,446</b>	<b>117,268</b>	<b>6,723</b>	<b>280,437</b>	<b>7.7</b>	<b>123,991</b>	<b>3.4</b>

주: 1. 신탁계정 여신을 포함한 기준('98년 3월말 현재)  
 2. 고정: 부도, 법정관리, 6개월 이상 연체업체에 대한 여신중 담보 여신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3. 회수의문: 부도, 법정관리, 6개월 이상 연체업체에 대한 여신중 담보부족 등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  
 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4. 추정손실: 부도, 법정관리, 6개월 이상 연체업체에 대한 여신중 담보부족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실하  
 여 즉시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5. 무수익여신: '부실여신' 에 '고정' 분류여신을 합한 여신  
 6. 부실여신: 여신건전성 분류 결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